

書店人과 서점문화

문화소통 기능의 재인식

許昌成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출판협동조합은 지난 11월20일과 21일 양일간 전국 각지의 서점 경영인과 종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점인대학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워낙 짧은 일정이라 다소 무리는 있었을지 몰라도 서점문화의 최일선 담당자인 서점인들의 자세를 가다듬고, 의욕을 고취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육이었다. 구체적으로, 서점의 역사(안춘근)와 서점인의 역할(김동길) 등 원론적인 논의에서부터 서점경영의 합리화(진창갑), 서점의 디스플레이와 레이아웃(이영혜) 등 기술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서점에 관한 모든 것들이 시종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 논의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서점인들이 과연 이 사회에서 서점이란 무엇이어야 하며, 또 그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냐는 문제를 세심 인식했으리라 믿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현재의 우리 서점상황에 대한 반성 또한 촉구한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의 서점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되짚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서유통구조부터 개선돼야

그리스에는 서기전 336년에, 로마에는 서기 50년에 이미 서점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다는 우리는 어떠한가? ‘역사상의 출판선진국’임을 자랑하지만, 근대 이전에 서점의 형성과 발달이 이루어진 예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책의 유통의 역사, 서점의 역사가 없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서점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곧 서점문화의 부재를 뜻하기도 한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돈을 받고 책을 파는 서점의 상업적 가능성조차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현재 근 4천을 헤아리는 서점이 우리나라 각지에 산재해 있지만, 그 대부분이 수지균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놓여 있는 형편들이다. 출판이 일종의 모험산업임에 비해, 서점은 그런 위험부담에서 벗어난 훨씬 안전한 문화사업임에도 말이다.

이같은 사정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도서유통경로가 지나치게 복잡다기하고 거래절차가 문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책이라면 웅당 서점을 중심으로 공급, 판

매돼야 한다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 상식이 제대로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서점들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또 때로는 몇해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代를 이어가는 전통있는 서점의 존립이 불가능한 것도 다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말하자면, 도서유통경로가 다변화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다변화가 왜곡된 것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미국처럼 슈퍼마켓이나 약국에서 책을 파는 식의 다변화는 얼마든지 환영할 만한 현상이지만, 서점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비정상적 유통질서는 차체에 점차적으로 개선돼야 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의 역할

한편, 위와 같은 서점존립의 최소한의 상업적 기반이 마련된 다음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서점은 출판과 마찬가지로 공익성과 상업성이 서로 배반되는 양면의 균형을 의무로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면의 노력이 그동안 소홀했던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이윤추구에만 급급해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의 사명을 망각한다면, 서점사업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책까지 거리낌없이 파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점은 학교보다도 중요한 대중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 서점은 문화를 소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대중의 문화의식을 개발, 고양하는 사회교육, 평생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서점문화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반복, 강조함으로써 서점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문화의 배달부’라는 긍지와 자존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른바 ‘서점인의 철학’을 확립시키는, 앞서의 서점인대학 같은 종사자들의 교육기회가 보다 자주 마련돼야 할 것이다. 로베르 에스카르페가 「책의 혁명」에서 밝혔듯이, 서점이라는 것은 주인이 자기의 고객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의식수준에 의해 특징지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점의 문화적, 교육적 의미가 반드시 서점공간의 확대 속에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10평 미만의 소형 서점들이 거의 대부분인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불

“미래의 서점인은 이제 더 이상 서점에 앉아 손님을 기다릴 수는 없다. 그는 종건 싫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독서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문화촉매자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점인이 무엇을 하느냐이다.”



許昌成씨

때, 매장의 확대는 어느 모로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에스카르페의 말대로 주인이 자기의 고객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의식수준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10평 미만의 매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적, 교육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대형서점들만이 그러한 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독점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대부분의 서점인들은 그같은 현상들을 상업적 이기주의의 발로로 보고 있다. 대형서점은 문화공간의 확산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여타 중소서점의 존립기반까지 잠식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중소서점은 중소서점 나름대로 담당할 수 있는 ‘몫’이 있는 만큼 이를 확대재생산시키는 방향으로의 배려가 아쉽다 하겠다.

그럴 경우 우리는 존 플레처의 다음과 같은 즐거움을 전국 곳곳의 서점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즐겁게 지내도록 내버려두라.

가장 좋은 벗인 책들이 있는 곳은 내게는 영광스러운 궁전과 같도다.

나는 거기서 항상 옛 현인들과 철인들과 대화를 나눈다.”

서점인이 해야 할 일들

다시 에스카르페의 말을 빌리면, 서점은 적어도 세 가지 필요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그 지역 주민들 가운데서 잠재적 독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요, 둘째는 주민들의 일상활동 반경 안에서 통행인이 많은 장소에 자리잡는 일이다. 세째는 ‘문화적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구매자들의 반응을 유발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과연 이 세 가지 필요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서점이 얼마나 되겠는가? 특히, 첫째와 셋째 조건의 충족을 위해 우리 서점인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후, 서점은 단순히 소매상으로만 간주하는 서점인은 없으며, 구매자들에게 그렇게 인상짓는 경우는 또 없는가? 이 모두가 서점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좌우된다 하겠다.

미래의 서점인은 이제 더 이상 서점에 앉아 손님을 기다릴 수는 없다. 그는 종건 싫건 자신들의 지역에서 독서를 유도하는 문화촉매자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서점인과 책, 혹은 서점인과 구매자들의 관계는 책을 판매함으로써 끝나는 것도 아니다.

이제 서점인 스스로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반성과 인식의 적극적인 전환을 꾀할 때다. 이번 서점인대학의 개최 취지도 다 이에 있거니와,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이다.

건전한 서점문화의 정립을 위해 앞으로 서점인 모두는 뚜렷한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부연해 둘 것은, 이를 위해 출판인과 서점인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제까지보다 더욱 더 요긴하다는 점이다.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10개월 20호분 · 값 1만원
전화문의 : 732-1431~3